

가와사키시립 초등학교 · 특별지원 학교의

식품 알레르기 대응에 관하여

~학부모님 여러분께~



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 사무국

먼저 드리는 말씀

가와사키시는 2015년 3월에 문부과학성이 작성한 「학교 급식의 식품 알레르기 대응 지침」을 받아, 「가와사키시립학교 급식의 식품 알레르기 대응 방침」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16년 3월에는 「가와사키시립학교의 알레르기 질환 아동 · 학생을 위한 대응 매뉴얼」에 대해 개정을 실시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필요에 따라 개정하면서 학교의 알레르기 대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대응은 학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을 바탕으로 보호자와 학교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이들의 알레르기 사고를 방지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을 위해,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 알레르기란, 특정 식품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피부 · 호흡기 · 소화기 등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나필락시스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두드러기 등의 피부 증상, 복통이나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 기침, 짹쌕거림,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급격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혈압이 낮아져 의식 저하나 무력감 등이 오는 경우를 특히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부르며,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중대한 상태를 말합니다.

학교에서 식품 알레르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학교생활 관리 지도표'가 필요합니다.

매년, 제출해 주십시오.

의사로부터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을 받고, 특정한 식재료에 반응이 있는 분으로, 가정에서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원인 식재료를 제거하고 계시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급식시간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 급식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표시 의무가 있는 특정 원재료 8 품목(계란, 우유, 밀, 새우, 계, 땅콩, 메밀, 호두) 중 새우, 계, 땅콩, 메밀, 호두 5 품목 및 본 시(本市)의 아동·학생 등의 증례(症例)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증상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2026년도(레이와 8년도)부터 키위와 견과류(카카오, 살구씨, 밤을 제외)는 급식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의 식품 알레르기 대응은 그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겠습니다.

1 완전 제거 대응

일률적으로 완전 제거 대응으로 하며, 부분 제거는 실시하지 않습니다(어느 일정량까지는 섭취 가능한 경우에도 섭취 의지 여부를 양자택일로 합니다).

제거식 대응에서는 계란, 우유, 밀 중에서 제거할 품목을 각 학교에서 검토한 후에 결정합니다. 대체식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본 시의 학교 급식에서는 마요네즈, 아이스크림을 제외하고 생·반숙 계란의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열 조리된 계란을 제공합니다.)

2 도시락 지침

‘원인 식품의 종류가 많다’, ‘조미료나 다시 등 극미량으로 반응이 유발된다’ 등 급식을 거의 먹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매일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완전 도시락 대응’이 됩니다.

또한, 일부 메뉴만 먹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메뉴가 제공되는 날에만 가정에서 그 메뉴에 대응한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일부 도시락 대응’이 됩니다.

3 음용 우유에 대한 대응

자녀분이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 음용 우유뿐만 아니라 조리용 우유나 유제품, 이를 포함한 가공품도 제거하는 ‘완전 제거 대응’이 되며, 음용 우유만 제거하는 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이외의 이유로 우유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학교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용 우유 이외 중단 조치

원인 식품의 종류가 많거나 급식을 거의 먹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에서 매일 도시락을 지참하시되, 우유 알레르기가 없으시면 음용 우유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대응 시 유의사항

- ◆ 가정에서 지참한 도시락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보관합니다.
기온이 높을 때는 보냉제 등을 넣어 주십시오.
- ◆ 실제 급식에서의 대응 전에 학부모님과 학교가 면담을 하여 상세 내용을 설명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대응 절차

신규【신입생·전학생】

연도 도중【변경·해제】

다음 연도 이후【변경·계속·해제】

학교에 식품 알레르기 대응을 신청한다

- 취학 시 건강진단이나 입학설명서, 전학과 같은 기회에 학교에 식품 알레르기 대응을 신청합니다.
- 식품 알레르기 조사를 받습니다.
- 학교에 대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학교생활 관리 지도표'를 학교로부터 받습니다.

의료기관 내원

~매년 진찰을 받아 주십시오~

주치의에게 '학교생활 관리 지도표'를 작성해 달라고 하십시오. (매년 제출)

개인면담 실시

'학교생활 관리 지도표'를 바탕으로 교내 식품 알레르기 대응 위원회의 구성원과 면담합니다.

대응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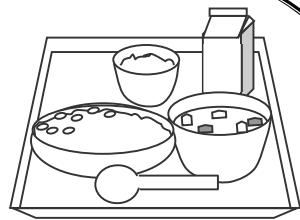
- '학교생활 관리 지도표'를 바탕으로 교내 식품 알레르기 대응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대응 내용이 결정됩니다.
- 학교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한 '학교 급식의 식품 알레르기 대응 결정 통지서'의 보호자 기입란에 서명을 하고, 복사본을 받습니다. (원본은 학교가 보관)

대응 시작

사전에 학교로부터 식단표 등을 받아 확인합니다.

Q & A

Q 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가요?



A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적절한 대응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이 대응하면 사고를 유발하거나 현장이 혼란스러워지는 등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대응은 정확한 의사의 진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Q ‘학교생활 관리 지도표’ 대신에 ‘진단서’로도 가능한가요?

A ‘학교생활 관리 지도표’ 제출은 필수입니다

문부과학성 감수 ‘학교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른 ‘학교생활 관리 지도표(알레르기 질환용)’의 제출이 필수입니다.

Q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에피펜®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에피펜®을 사용합니다.

또한, 구급차를 요청하고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습니다.

아나필락시스에 효과적인 치료약은 에피펜®입니다. 에피펜®은 응급 시에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환자 대신에 학교 직원이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와사키시립 학교 급식의
매월 식단표 및 사용 식재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